

제주 메밀사발을 모티브로 한 백자 작업

도예가 한 용 민

우리나라 백자라 함은 흔히 조선왕조시대에 만들어진 백자를 보편적으로 생각 한다. 물론 고려시대부터 백자가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된다.

백자는 단순히 하얗고 깨끗하다는 느낌이지만, 표면색은 우윳빛과 같은 유백색, 겨울눈과 같은 설백색, 푸른기가 도는 청백색 등 다양한 색상을 지닌 것 역시 백자이다.

시대에 따라 백자의 색상도 특징을 보이지만 어느 지방의 백토 소지인가에 따라 그 색과 느낌은 크게 좌우되며, 유약의 조합, 소성 분위기에 따라 그 발색은 크게 변화하는 것도 역시 백자이다.

15세기 백자가 유백색 계통이며, 16세기가 되면 설백색, 17세기에는 회백색, 18~19세기에는 푸른기가 약간 도는 청백색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작업의 바탕은 조선 후기 제주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메밀사발을 모티브로 한다. 이 사발은 제주도 지역에서는 특별히 '므밀사발'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제주도의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종 중 하나이다.

메밀사발은 다른 백자와 달리 유면의 빙열이 심하지만 그 색상이 풍부(유태색, 청백색)하고, 소성온도에 따라서 굽에서 드러나는 crawling현상(석회질 성분을 통해 유약이 말리는 효과)이 매우 자연스럽다. 크게 두가지 색으로 구분되며 빙열이 심한 청백색의 그릇과 유면이 부드럽고 상아색에 가까운 그릇이다.

○ 조선후기 메밀사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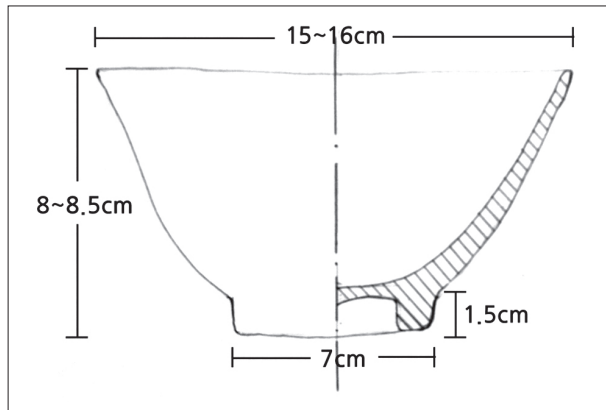
(1) 빙열이 심한 청백색의 메밀사발

깊은 환원에 소성온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유면의 빙열과 광택이 심하고 굽 부분에 crawling현상이 사라진다. 굽과 사발의 안쪽에 사토질의 도침이 8~10개의 흔적이 있다. 도침자국은 메밀사발은 관요와 달리 대량생산을 위해 그릇을 포개어 소성하였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2) 상아색에 가까운 메밀사발

환원 소성이 약하며 소성 온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유면의 빙열이 적고 광택이 부드럽고 굽 부분에 crawling현상이 드러난다. 굽과 사발의 안쪽에 사토질의 도침이 8~10개의 흔적이 있다.

(3) 형태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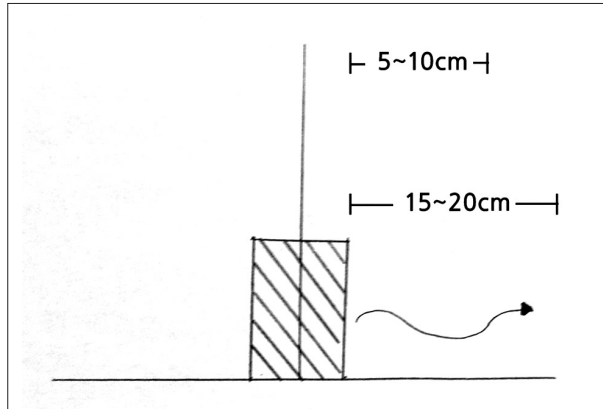
〈메밀사발 단면〉

굽 위쪽에 기벽이 두꺼운 반면 바닥에서 깊이 파인 굽 처리가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도석의 소결 능력이 뛰어나므로 사발 형태에서 기벽과 굽 높이의 차이가 나거나 두툼하게 굽 처리를 하더라도 건조 시 쉽게 깨지지 않게 유지해 주며 소성 후에 무게감이 더해지는 특징이 있다.

(4) 소성분위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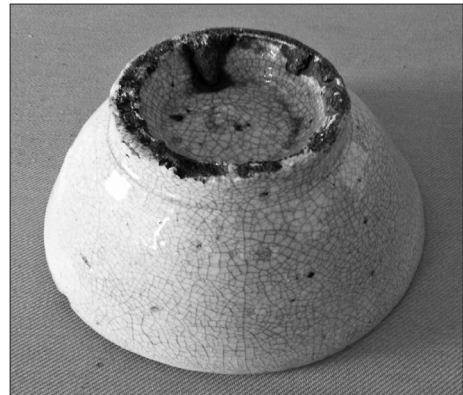
소성방법에는 산화, 중성, 환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자기는 보통 환원을 중시한다. 메밀사발인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깊은 환원방법과 약한 환원방법에 의해 사발의 유약과 색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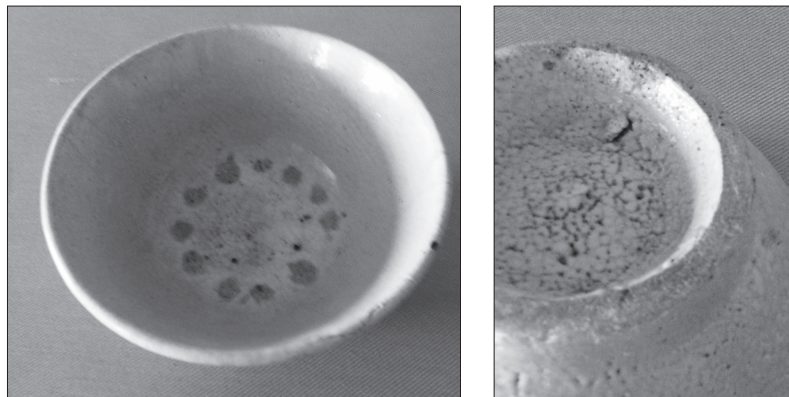
〈메밀사발의 소성 시 설창에서 나오는 불꽃의 길이〉

청백색의 사발인 경우 깊은 환원(나무 투입 시 불꽃이 나오는 길이로 측정)으로서 소성온도가 높고, 이로 인해 유약의 광택이 깊고 빙열이 심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사토질의 도침 자국 흔적이 굵거나 그릇 안쪽에 심하게 드러난다.

(5) 메밀사발 사진



〈청백색의 메밀사발〉



〈상아색의 메밀사발〉

나의 작품은 ‘메밀사발’이 드러내는 다양한 색상을 여러 형태에 접목하고, 흙과 유약을 동일시 하지만 소성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색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자 한다.



〈사발〉



〈왼손잡이 차주전자〉



〈다관〉



〈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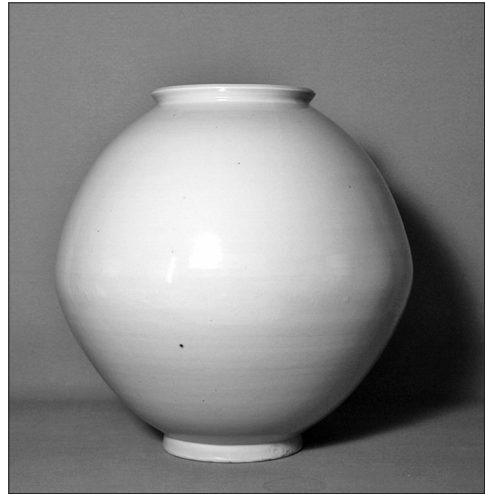
〈찻사발〉



〈꽃병〉



〈달항아리〉



〈달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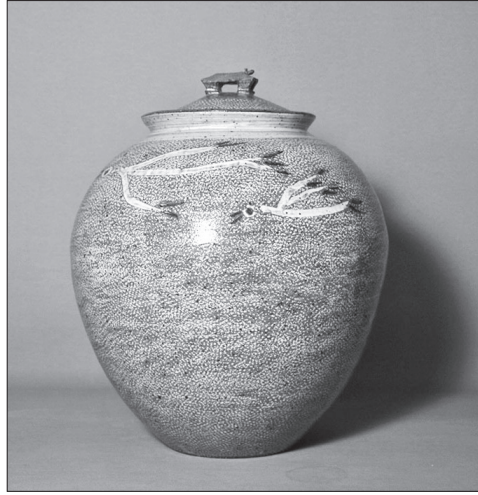
〈달항아리〉



〈달항아리〉



〈달항아리〉



〈분청항아리〉

제주발전포럼